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주기종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장

1. 출생성비의 인구학적 현상

출생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조금 더 많이 태어나고, 그 후 남자아이의 사망률이 여자아이보다 조금 높아 연령이 진행되면서 결국 남녀의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자연상태에서 출산아의 출생성비는 105(여아 100명당 남아수) 내외로, 남아와 여아의 출생확률은 각각 51%와 49%로서 4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 확률적으로 2명의 남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출산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남아선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아들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태아 성감별 등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수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원하는 수의 아들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아선호로 인한 영향이 고출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아선호관이 소자녀 규범과 결합될 때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출생성비를 왜곡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여아출생확률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두 번째 자녀까지 아들을 가지지 못할 확률은 24%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 규범이 정착되어 있어서 첫 자녀가 딸일 경우 두 번째 출산부터는 아들을 낳기 위해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1994년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출산아의 경우는 106정도의 정상적인 출생성비

를 보이지만 두 번째 출산아에서는 114로 상승하며,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출산아의 경우는 각각 206, 238로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간 전체 출생아의 10%내에 있는 셋째 이후의 출생아 중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2배 이상 태어난다는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2. 출생성비 불균형의 사회·의학적 원인

출생성비는 105 내외가 일반적인 정상 수준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110을 넘는 경우는 사회·의학적 요인에 의한 인위적 영향력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남자아이만을 임신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임신 후 태아 성감별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가장 분명한 출생성비불균형의 원인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성비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제도와 국민의 의식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차별관행과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남자에게 종속 또는 기껏해야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왔다.

이처럼 성차별과 이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는 보이지 않는 뿌리깊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전 사회적 차원의 계획적·의도적·지속적 노력없이 개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성원들간의 반복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의 총체이며,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성비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사회·인구학적 문제점

첫째, 사회적 문제로서 결혼연령기 남녀의 심한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신부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1998~2000년경에는 신랑의 20%정도가 신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같은 현상은 농촌에서 더욱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신랑신부 결혼연령 차이의 증가, 재혼의 증가, 해외로부터의 신부 수입, 독신의 증가 등 결혼 풍속도에 변화가 올 것이고, 동시에 짝짓기의 실패로 인한 성폭력이나 포르노 등 성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와 남성 동성애로 인해 AIDS와 같은 성병의 증가도 우려된다.

둘째,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모성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다. 태아 성감별은 대개 임신 9주경에 가능한 융모막검사나 임신 16주에 가능한 양수검사를 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모성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셋째,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인명경시풍조의 조장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갖는다. 이같은 의료행위를 요구

하는 일반 국민이나 성감별 및 인공임신 중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양측의 문제이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1~2번째 출산순위로 전파된다면 신부부족이라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4.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우리나라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세 번째 이상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1~2번째 출산순위로 전파된다면 신부부족이라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에 대한 예방과 해소대책은 성차별 해소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가.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법적 평등과 사회제도 개선

- 장인, 장모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부여
- 임신부의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
- 가족법 제정을 통한 여성호주의 지위 보장 및 아들·딸 동일한 상속분 보장
- 성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장관실(제2실)을 신설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부터 여성개발부분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여성개발기본법 제정,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의 개선 등 10대 중·단기 중점과제를 선정

나. 여성의 취업 및 인력활용

- 남아선호관 불식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여성 취업금지 직종의 완화로 취업분야 확대
 -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

다. 지도·단속의 강화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규정의 홍보와 집행 강화
 - 의료법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태아 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의 벌칙 강화
 - '93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태아 성감별을 시행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태아 성감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개정을 추진함(입법예고).
 -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 의료인 및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자제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강화
- 라.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 성비문제 등을 전담하는 조직 운영
 - 성비불균형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자연성비 회복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사업, 남아 선호사상과 성비불균형의 실태조사, 인공유산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성비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 추진, 효과적인 보건관련 청소년 성교육사업 실시방안 강구 등을 수행케 함.
 - 남녀성비 불균형 심화에 대한 공익광고 실시
 - 전광판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주관하는 '97공익광고 주제로 '남녀성비 불균형'을 선정토록 요청
 -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포스터·전단 등 홍보물 제작 보급
 - 성감별에 의한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및 홍보물(스티커)제작·보급
 -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송관계자 세미나 개최('96. 5. 29)
 - 대중에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서 성, 신분, 계층간에 차별적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방송관계자들에게 출생성비 불균형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계, 연출(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진행), 작가 등 방송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에 합의를 도출함. 또한 방송에 나타난 여성비하, 남아선호 발언들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